양동시장 토요장터 '북적' 지난 22일 오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토요장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동시장 만물전', '일파만파 경매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막걸리·파전·국수 등을 500원에 판매한 '30년 전 그때 그 가격전'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등株 '옐로칩'의 역습

기아차·아시아나 수익률 '날개'… 대장주 압도

2등주(株)의 역습이 매섭다. 통상 '옐로칩'으로 불리는 이들 종목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집'을 기반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업종별 대장주를 압도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인 2등주는 기아차와 아시아나항공이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2만9750원으로 마감하면서 작년말 2만50원 대비 48.38% 올랐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상승률 15.29%를 3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항공업종에서도 같은 기간 대한항공이 30.97% 오르는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100.27% 뛰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증시가 맥을 못 춘 이달 들어서도 기아차(8.58%), 아시아나항공(23.10%)은 큰 폭 상승했다.

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올해 들어 2.65% 하락했지만 2등주인 KT는 19.05% 상승했다. 기계업종 '최대어' 두산중공업은 22.56% 급락한 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3.06% 상승했다.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가 2.59% 올랐지만 대표적인 '블루칩'인 삼성전자는 5.38%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등주가 선전하는 배경으로 가파른 실적모멘텀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가총액을 꼽았다. '절대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2등주의 실적이 크게 감소했던 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더 높은 실적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IT·운수장비 업종 반등 모색 외국인 매매 동향 주목해야

■ 주간 증시 포커스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대한 기회를 엿보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반등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지수 하락이 정치적인 부분과 지정학적 위험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다면 더더욱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

악재 대부분이 '해외발'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후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위기를 해결해야 할 유럽 각국의 움직임이 여전히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섣불리 장세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정학적 위험이 장세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사태의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러한 위험이 체계적 위험(시장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1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기존 주도 종목으로 집중되면서 관련 종목의 낙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4월까지 외국인 매수 금액 11조원 중 IT업종과 운수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로 비중을 줄일 때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외국인 매물이 줄어들면 관련 주도업종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등 시 외국인 시각 변화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미분양 아파트 많고 주택구입 쉬운 광주·전남

주택청약 '만능통장' 인기 시들

전국 가입자 1000만명 육박…광주 22만·전남 18만명

광주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22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남 가입자도 18만명으로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주택구입난이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금리가 바닥인 시점에서 청약통장 기능은 물론, 절세·고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광주·전남 가입자 적어**=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가입자가 4월말 현재 944만명, 가입금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308만명)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613만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으며, 지방에선 331만명이 가입했다.

광주의 가입자는 모두 22만명(1080억원)으로 가입자수가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서울이 308만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2만명, 대구 33만명, 대전 29만명 순이었다.

전남지역 가입자는 모두 18만명(967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로 가입자가 적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4만명), 제주 8만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적은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느는 등 주택구입난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절세·고금리 혜택**=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가청약할 수있도록 설계된 입주자 저축상품이다. 무주택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씩 기입할 수 있으며 종전의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또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근로자 및 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기능은 물론, 2년 기준으로 연 4.5%대 고금리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지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2년 이상 연 4.5% 조건의 예금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H, 광주·전남 미분양 상가 파격 세일

오늘~내일 재입찰 최대 34%할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전남지역 단지 내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최대 34% 파격 할인해 공급한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25일 이틀간 광주 용봉2지구·양림2지구, 담양 백동지구 등 4개 단지 내 상가 5개 점포를 재입찰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상가는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물량으로 당초 예정가격보다 14~34%까지 대폭 인하됐다.

광주 용봉2지구 내 상가 점포(39.7㎡)는 당초 716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27% 낮췄고, 양림2지구 점포(46.5㎡)는 14% 인하한 1억4500만원에 공급한다.

또 담양 백동지구 상가 35.3㎡ 점포는 6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를, 같은 상가 내 20.5㎡점포는 3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4%를 대폭 할인해 분양한다.

이밖에 지난달 낙찰됐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여수 죽림지구 A-2블럭 58.5㎡ 점포는 1억2900만원에 재분양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광주전남본부 주택판매팀(062-380-0593, 0512)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달인'들이 만든 먹거리 맛보세요

광주신세계 초대전

광주신세계백화점이 27일까지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TV 인기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빼어난 음식 솜씨를 선보였던 주인공들을 초청해 '생활의 달인 먹거리 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주인공은 63회에 출연했던 어묵의 달인 이규남씨를 비롯해 호떡의 달인 김진호씨, 만두의 달인 이제철씨, 족발의 달인 문영순씨, 강정의 달인 이영석씨 등이다.

행사장에서는 달인들의 솜씨를 직접 구경하는 것은 물론 달인들이 만든 음식도 구매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